

제 137 호

연중 제 15주일

1975. 7. 13.

# 숲정이

발행인	김종택
인쇄인	범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내 (전화 ②3498)

### □강론□



## 자갈밭이 논

이도마신부

들에는 파아란 물결을 연상하듯 벼가 실어졌다 악인의 눈에도 선인의 눈에도 하느님께서는 골고루 고마운 채비를 주셨다. 그러나 어떤 눈은 빗물을 담아두지 못한 채 밑으로 새어버린다. 제칭 자갈밭이 논이라 일곱하시지만 수심은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진리를 말씀하시지만 자갈밭이 마냥 홀려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똑같이 비를 주신 것처럼 씨뿌리는 하느님이신 그리스도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지만 똑같은 양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는 방법이 여러가지라 열매도 여러가지로 나타난다. 말의 결과는 듣는자에 따라 다르다. 가령 같은 말이라도 듣는자의 반응에 따라 웃는 자도 있고 두표정할 자도 있고 우는 자도 있는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오늘의 비유말씀을 듣는 이는 누구인가?

첫째로 길가의 씨앗이다. 마음의 문을 닫았기에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옛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느나라에도 많은 사람이 신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신의 말씀의 경우엔 학자도 무식자도 부자도 가난한자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결론은 결코 재능이 모자란 탓이 아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닫힌 문을 열고 들어가기엔 아스팔트의 딱딱한 길위에 열매를 낳기처럼 어렵다. 옛것을 위하는 편견, 새것에 대한 공포, 부도덕한 생활, 과대평가의 오만, 진리에 대한 무관심 등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귀머거리로 만든다. 그것은 자아도취적이고 독선적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메시지를 듣지 못할 것이다.

둘째로 돌밭의 씨앗이다. 말씀때문에 고난과 박해가 생겼다. 왜 박해가 생기는지 예수를 밟히지 않으셨다. 고난과 박해가 없었기에 있었더라는 사실만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을 뿐이다. 그들은 말을 잘 듣지 못하여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다른 의견을 들으면 즉시 시골로 피난간다. 마음길이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새것은 무엇이든 좋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시작은 잘해도 미치지 못하는 경박한 우리들이다. 셋째로 가시덤불의 씨앗이다. 허황된 마음, 물질에 사로잡힌 마음들이다. 사람들은 어느시대 어느나라에서든 부(富)에게 배반당한다. 부귀자세가 나쁜것은 아니다. 다만 사람은 그 부(富)를 하느님 나라에의 여비로 써야한다. 그러나 사람은 돈에 젖어버려서 그것을 지배하기는 커녕 눈이 어두어져 돈의 노예로 타락하고 만다. 돈은 사람에게 온갖 부정부패의 어리석은 짓을 강요한다. 더더 영혼전체를 차지하고 신앙의 씨앗을 질척시키고 만다. 살아가노라면 여러가지 걱정들, 노동에서 오는 고통, 가난의 설움, 직업에서 오는 불만 등등 온갖 소용돌이 가운데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열키 설키 위잉키 가시덤불에 휩싸여 불에 타 버리고 말 것인가? 이제 끝으로 주님은 우리의 기쁜 마음을 바라신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를 맺으라 하신다. 길바닥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들을 수 없다.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기쁜 땅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깨닫고 또한 열매를 맺는다. 하느님의 말씀 친구의 충고를 듣는 자에게는 도덕적 실패가 있을 수 없다. 십자가속고하여 사물을 이해한다. 또 믿고 듣고 아는바를 실행에 옮긴다. 예수의 사람은 듣고 이해하고 순종한다. 이윽고 말씀은 싸이 터올라 성금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야 말 것이다.

〈고산 천주교 주임신부〉

### \*이 주일의 미사\*

가톨릭 기도서 P 389

(1) 개회식  
 □**입당송** 나는 외로움으로 당신 얼굴을 뵈오리다. 깨어나 당신을 뵈움으로 행복하오리다.

**말씀의 전례**  
 □**제1독서** (이사야 55:10-11)  
 비는 땅에서 식물이 싹트게 한다.

□**증세송** ◎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었다. 땅을 굽어보시고 단 비를 내리시어/골고루 가릴지게 만드셨나이다/하늘스런 시대에 물을 그득 채우시어/곡식을 장만하기 이렇듯 하셨도다.◎

□**제2독서** (로마 8:18-23, 성서 p352)  
 하느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모든 조물이 기다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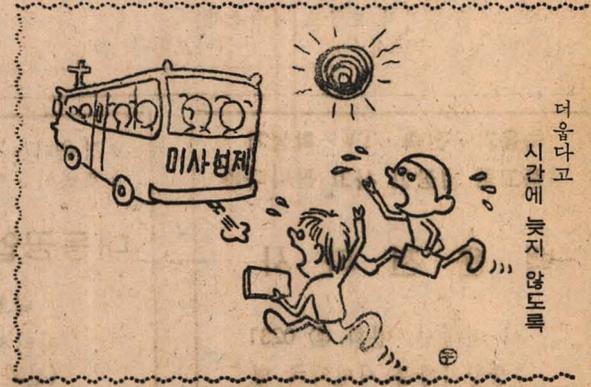
□**알렐루야** 알렐루야 씨는 하느님의 말씀이요.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를 찾아 얻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 13:1-3 성서 P.29)  
 씨뿌리는 자가 씨 뿌리러 나갔다.

- 신자들의 기도**
1. 우리에게 백배의 결실을 내는 좋은 씨앗이 되라고 일러주신 주여, 우리 모두 자신을 깊이 반성하며 당신의 뜻에 맞갖은 자 되도록 좋은 씨앗이 되도록 기도드리는 우리의 청을 들어주소서. ◎ 주여 우리의 기도들
  2. 주여, 우리나라를 위하여 비오니 믿는이로 하여금 이 현실안에서 사회의 정의와 사랑이 이루어져 당신나라가 더욱 빨리 임할 수 있도록 빛과 누룩의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소서.◎
  3. 폭우로 인한 수재민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모두가 한 형제안에서 형제의 고통이나의 고통임을 알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 도와줄수 있도록 은총 주소서.◎
  4. 이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하여 비오니 당신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 (3) 성찬의 전례 □**봉헌** □**성찬식**  
 □**명성체송** 참새도 집이 있고 제비도 새끼 두는 둥지가 있사와도 내게는 당신의 제단이 있나이다. 만군의 주시여, 내 임금, 내 하느님이여, 주여 당신의 집에 사는 이는 복되오니, 길이 길이 당신을 찬미하리다.

## 숲정이 산책



더욱더  
시간에 늦지 않도록



### 벽지공소에 미사도구를

윤 성 열

황해의 물결위에 찬란한 오늘의 태양이 빛나고 있는 곳에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성당의 종소리는 숙된 마음들을 씻어 내린다. 여기 해변에 주님의 은총이 내리기 시작할지도 어언 10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천주교회가 무엇하는 곳이며 무엇을 일깨워 주고 있는가 조차도 모르던 부안군 산내면 마포리에 부안 천주교회 관할 마포공소가 설립되어, 무당의 광대놀음이 일년 내 그치지 않는 미신의 마을에 뿌려진 복음의 씨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 그러나 너무 외떨어진 곳이기 에 본당까지는 28km나 되는 거리에 있는 마포공소의 교우들은 1년에 춘추로 두번있는 관공성사 이외에는 어지간히 신부님 모시기가 힘들며 미사참배가 진정한 그리스운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공때면 미사 참배 규칙조차 몰라 신자로서도 어리둥절하게 되며 앞에서 있는 복사가 하는대로 흉내만 내는식의 미사 참배를 하게된다. 그런데 변산 해수욕장을 근거리에 두고 있는 관광지라서 여름철만은 외롭지않게 각처에서 교우형제들이 우리 공소를 찾아오고 있다. 이럴때면 안타까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신부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쁨보다 미사참배가 그리운 우리 공소 신자들은 잔뜩 기대를 하고 있다. 허나 며칠간 휴양길에 오르신 신부님께서서는 미사드릴 준비를 하지 않으시기 마련이다. 미사를 기다리던 교우들은 조그만 실망을 해 버리고 만다. 누가 신부님들이 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전반적인 도구를 준비해 줄 수는 없는지? 제의 몇벌은 가지고 있으나 백의며 성작이며 포도주며 그 이외의 도구들은 공소로써는 준비하기에 경제 여건이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에는 외국인 신부님께서 오셔서 「미사를 드릴 수 있느냐」고 물어왔지만 우리는 그 기다림의 미사를 참배하지 못하고 그 신부님을 쓸쓸히 보내고야 말았다. 뿐만 아니라 고향을 떠나 해변수호를 하고있는 전투경찰대원들도 종종 이곳에 들른다. 그들중에는 신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외로움을 잊어버리려고 종소리를 듣고 찾아오는 예비신자들이 많이 있다. 이들에게 한편의 책이라도 따뜻하게 읽어주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일깨워 주고 싶은 마음이나 우리 공소에는 그럴만한 책자가 한권도 없다. 구석진 변산반도에 외롭게 모여있는 양떼들의 터전에 많은 교우 형제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라며 목자가 그리워 애타는 양들에게 미사도구를 갖출 수 있도록 손길을 바라고 있다.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어둠에 빛을 주소서...」 (마포천주교회)



### 인간화〔人間化〕

헬터·까마라 대주교

교회는 현대세계안에 있다. 교회는 세계의 건설에 참여하고 있다. 교회는 세계를 인간화 하려는 인류의 노력에 참여하고 있다. 아무도 이 인간화란 표현에 놀라서는 안된다 인간이 신인(神人)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과 결합되어 있다면, 세계를 인간화 한다는 것은 인간이 최상의 단계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전체 피조물에서 죄의 모든 자국을 깨끗이 지워버림을 뜻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완전한 사람이 되시오..」(마태오 5: 48)

빈곤으로 비참해진 인간 이하의 사람들을 인간답게 만드는 일과, 사치로 인간성을 상실한 이른바 초인적(超人的)인 사람들을 인간답게 만드는 일, 두가지 중 어느 쪽이 더 어렵고 더 벅찬가? 한쪽의 실현이 다른쪽의 실현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이 두가지 일은 서로 보완(補充)해야 하는 성격의 락을 띠고 있다.

이제 저개발 지역에 살고 있는 하느님의 백성들이 인간 이하의 생활로 말미암아 인간 이하의 차원으로 전락한 하느님의 자녀들을 발전시키는 투쟁에 전력을 다해야 할 시기가 왔다. 아르헨티나의 마르·벨·블라따에 모인 라틴아메리카의 주교들은 거기서 교회가 라틴아메리카 대륙의 발전과 총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유럽 공동 시장과 그밖의 강대한 경제 제국들이 현재 제를 자기들끼리 분배하고 싶어하는 이 20세기에 있어서 생산규모는 대륙적 차원으로 커졌다. 우리는 현재 세계를 거인 같은 몇몇 이기적 대륙권(大陸圈)으로 나누어지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경험은, 극도로 강한자와 극도로 약한 자 간의 진지한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발전은 평화의 새로운 이름」이라고 한 귀중한 교훈에서 우리는 필연적 결론을 끌어내야 한다. 교황이 인용함으로써 불멸의 얘기가 된 펠letin의 이 교훈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인류의 80%를 저개발과 굶주림의 곤경에 머물러 있게 함은 가장 무서운 전쟁들을 유발할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태만의 죄를 저질러서는 안된다. 우리는 투쟁의 국외자(局外者)가 될 수는 없다. 우리는 이 투쟁에 참여해야 할 인간으로서의 의무, 그리스관으로서의 의무가 있다.

~平和革命 (Revolution Through Pcence)중에서~

녹음기·전축·TV·확성기  
\*중고품 병장고 사고 팝니다\*

### 백운전자사

이 텔레사 전화 ㉠ 0231  
중앙시장통 시민약국 옆

\*경운기·분무기·탈곡기  
\*트랙터·양수기·농기구 일절

###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승열(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전화 5116, 6114, 3547)

K.S자자료 페인트 대리점  
반도카슈 대리점  
포구제로 각종한지  
실크 솔입벽지 파이텍스

### 대동지물상사

전주시 풍남동 1가17번지  
전화 5986  
임정현(도민교)

□ 양지쪽 □

□ 협지중계 □

# 전동 본당 전립 회갑 잔치

전동성당의 들기둥은 얼마의 포근함을 느끼게 해준다. 그 전동성당이 옛 조상들의 피와 땀으로 7년에 걸쳐 지어졌다. 준공된 지 61년, 축성된 지 60년을 맞는 회갑잔치가 지난 7월 5일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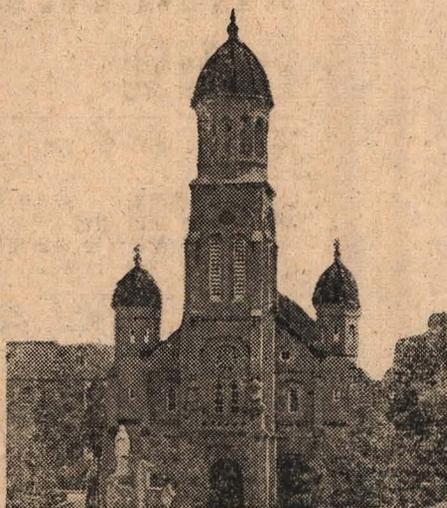
아침부터 내리는 비에도 아랑곳 없이 성당안은 그야말로 입추의 여지없이 꽂 들어찼다. 마당에 내어 놓는 의자도 빈자리가 없었다.

오전 11시 교구 사제단의 장엄한 입당 행렬에 이어 새 사제 일곱분의 서품식이 거행되었다. 순교복자 김대건 신부의 축일이라서 그 감회가 더욱 크다.

오후 1시, 축하식이 있었다. 간단한 국민의례와 보고에 이어 주교님의 치사와, 도내 기관장을 대표한 지사님의 축사도 있었다. 그간의 공로자에 대한 표창식에 고인들의 가족이나, 당사자들의 눈시울이 축축하다.

오후 2시와 8시에는 축하공연이 시민문화관에서 있었다.

본당 교우들은 한 가지로 입을 모아 감사드리고 있다. 옛 어른들도, 또 「새성당 짓기」 운동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새



성당을 짓는데 협조해서 개인소유의 땅 104평을 봉헌하신 이 상용 교장님(전주해성 중·고)에게 뜨거운 박수가 여러 차례 전동성당을 울렸다.

**\*공로장을 받으신 분\***

- 고 이 춘화(도마)씨
- 고 이 춘의 (마지아)씨
- 고 조 행룡 (방지거)회장
- 이 덕희 (베로니카)할머니
- 김 순녀 (말바라)전교회장

## 요심이 (103) 김병오

고리반에 만나오는 분도집에 가보자



나는 다리가 아픈데 수녀님은 머리가 더웁지요?

응 그래



좋은수가 있으니 이렇게 합니다

좋은생각이다



\*개점 1주년 환인판매\*

삼성 T.V 대리점  
**삼성 전주 센터**

T.V, 냉장고, 전기용품 일절  
박 영 옥(누시아)  
전주극장입구 전화 ② 5893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임금님 찾 집**

전주 전신전화국 앞  
전화 ② 5013  
김 원 준(야고버)



〈사제 서품식 광경〉



〈축하 공연의 한장면〉

※ 신자들의 건강 센터 ※

※ 신자들의 집 ※

**성심당 한약방**  
대지사진관(2층)

이 상 범(필노리아노)  
육교빌 구 부부배차장 옆  
전화 ③ 6544

※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

**영진약국**

— 조제약 전문 —

김 울태(베드로)  
☎ 육교빌 중앙 시장통  
(전화 ② 4577)

※ 집단장 청부. 문의 환영 ※

**금강 페인트사**

〈고급도로, 방수액, 흑판등〉

전화 ③ 0876 김 데레사  
소방서 부편. 결핵협회 옆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1. 전주교구 신부님 이동 발령

박 중진(시몬)신부님 임실 본당,  
김 동준(야고버)신부님 : 중앙보좌  
이 배주(알로이시오)신부님 : 함열 보좌,  
엄 기봉(베드로)신부님 : 군산 둔율동 보좌  
김 반석(분도)신부님 : 임실→여산

범 선배(라우렌시오)신부님 : 대야 본당  
강 인찬(토민교)신부님 : 창인동 보좌  
한 봉섭(시몬)신부님 : 전주 보좌  
김 종길(라파엘)신부님 : 여산→전주 복자,  
오 기순(알벨도) 신부님 은퇴:

2. 금년 고등학생, 대학생 장학생 선발은 당국의 사정에 의하여 보류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전주교구 주일학교 교리교사 수련회 (본당, 공소) 1975. 28-31일 (3박 4일)

마포에서 실시. 참가비: 2,000원 (교통비포함) 각 본당 교리교사들의 신청 바랍니다.  
노충동 신축 봉헌 약속 기금을 빨리 완납합니다.

(중앙)

전화 ㉠2651 주임 신부 이 대 권  
㉠3874 사도 회장 김 영 진

1. 구리아 월례회: 오늘 오후 2시부터
2. 성모회 월례회 있음
3. 첫 영성체 준비 교리: 7월 15일 오후 5시부터  
교우 자녀분들은 빠짐없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4. 7월 12일 부임 하신 보좌 신부 김 동준 신부님께 길  
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자)

전화 ㉠ 5238 주임 신부 오 기 순  
사도 회장 조 성 호

1. 은퇴하신 오신부님을 위해서 기도와 협조에 감사합  
니다. 10일 성모병원 별관으로 이사.
2. 5대 본당 신부님: 김 종길(라파엘) 신부님 12일 오  
후 3시에 부임. 새로 오시는 신부님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3. 성우회 월례회 연기
4. 교무금 완납 요망

(노충동)

전화 ㉠7 32 주임 신부 함 승 천  
사도 회장 조 해 형

1. 신용조합 월례회: 공식 미사후
2. 부녀회 및 간부 월례회: 다음주일
3. 프란치스코회 주교님 노충성당 방문: 7.20일 오후 6시  
환영식에 참회 회원과 본당 교우들의 많은 참석 바  
랍니다.
4. 7월 20일(주일) 저녁미사를 오후 5시로 앞당김.  
주교님 환영식으로 이날만 한함.
5. 성당 신축 헌금에 감사 드립니다.  
군산 둔율동: 114,900원, 전동: 6,000원 장 정회,  
배 금순: 각 2,000  
주계: 124,900원 누계: 3,759,477

㉠ 신축 성미: 2되 누계: 265.2되.

(덕진)

전화 ㉠ 2182 주임 신부 박 중 근  
사도 회장 김 중 환

1. 거룩한 미사 제단에 꽃을 봉헌 합니다.
2. 신용 조합 월례회: 공식 미사후
3. 신자, 예비자 특별교리: 매주 <토> 8시

(서학동)

전화 ㉠ 2276 주임 신부 김 영 일  
사도 회장 이 거 영

1. 상관 사도 월례회: 오늘 9시 미사후
2. 예비자 학생 교리 없음: 상관 미사관계로
3. 새 신부님의 환영식은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무사하  
게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 3222 주임 신부 김 환 철  
사도 회장 이 현 재

1. 축 한 봉섭 보좌 신부님 환영
2. 예비자 교리: 주일 10시 미사후 <유치원 2층>  
저녁 8시 미사후 <사제관 2층>
3. 사도회: 저녁 8시 미사후
4. 성화회 임시월례회: 오늘 11시30분 성체 수녀원에서
5. 대학생 창립회: 다음주일 10시 미사후
6. 영세자 사진: 사무실, 성모병원 앞 푸른사진관.
7. 유아 세례, 자모회: 10시 미사후
8. 신용 협동 조합 월례회: 14일 밤 8시.  
참석자에게 기념품 증정
9. 전자 제품: <T.V, 냉장고, 선풍기, 전기 제품 일  
절> 구입 희망자는 신청 바랍니다.
10. 신용조합 사한 모집: 18세 미만, 중졸 이상 남자.  
\*회갑 기념 추진 위원장님과 교우 여러분들께서 수  
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도회장- ㉠

\* 각 본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본 당	소 식	봉 헌 금	지구	본 당	소 식	봉 헌 금
제 1 지구	고 창 부 계 진 안 신 태 배 인 정 음	사도회 월례회	10,100원	제 3 지구	삼 레 주 현 동 창 인 동 황 동	사도회 월례회	52,830원
		제1회 주일학교 연수회 개최	13,150원			보좌 신부님 환영	37,922원
제 2 지구	대 야 둔 율 동 월 명 동 중 동	새 신부님을 환영 합니다	1,675원	제 4 지구	중 앙 노 충 동 덕 진 자 서 학 동 전 동	신용 조합 월례회	50,659원
		보좌 신부님을 환영 합니다	31,905원			상관 사도회 월례회	13,650원
제 3 지구	고 산 금 산 여 산	아동 교리 교사 여름성경	2,290원	제 5 지구	남 원 무 주 장 계 전 안	사 도 회	11,385원
		학교 준비 회의	8,750원				
		사도회 월례회	2,720원			추 보좌 신부님 환영	57,310원
		김반석 신부님 환영 합니다					